

전화·팩스·인터넷·스마트폰 ...

소통의 도구는 어떻게 발명되고 발전했나



인포메이션

제임스 글릭 지음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북을 동동 쳐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를 전달한다. 조선시대에는 파발이나 봉화로 적의 집입이나 긴급한 사안을 알렸다. 서찰을 쓴 뒤 사람을 시켜 며칠을 걷게 해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자주 이용했다.

하지만 19세기 유럽에서 전신이 발명되면서 소통과 통신은 거대 전환점을 맞는다. 전화, 팩스, 인터넷, 스마트폰 등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이 편리한 소통의 도구들은 어떻게 발명되고 발전했을까?

인류의 소통과 정보 교환, 정보의 역사와 이론을 다룬 책이 나왔다.

베스트셀러 '카오스'로 '나비효과'를 선 세계에 각인시켰던 작가 제임스 글릭이 펴낸 '인포메이션'은 "정보의 역사와 이론 그리고 정보 혁명의 힘까지 소개하는 야심찬 책"이다.

저자는 정보를 역사, 이론, 홍수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 아프리카 북소리에서 시작해 정보 역사를 찾아 상형문자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자의 발명은 기록뿐 아니라 범주화, 일반화, 논리 같은 사고체계 자체를 만들 어냈다.

문자화된 언어는 진화했고 사전이 탄생했다. 사전의 발명으로 추상적 개념들이 분화돼 구체화됐고, 지식이 체계화됐다. 인쇄술의 발명은 책을 만드는 속도를 향상시켰고, 정보의 광범위한 유통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을 견인하여 서구 사회를 근본부터 바꿨다.

전신의 발명 또한 정보의 전달속도를 극적으로 번모시켰다. 저자는 정보의 전달 매체보다 정보를 기호화하는 방법에 주목한다. 결국 모든 정보를 0과 1의 1차원 배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보의 역사에서 분기점이 된 것이다.

또한 저자는 정보는 물리적인 뿐 아니라 생물학적인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현대 생물학은 DNA에서 시작됐고 생명의 핵심이 정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21세기는 정보의 홍수시대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전달되며 세상이 가장 긴밀하게 얽힌 시대다. 저자는 미래에 대해 설부른 예측은 삼가고 정보의 관점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볼 것을 권한다.

〈동아시아·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아는 의식 활동을 통일하는 초월적 대상



자아의 초월성

장폴 사르트르 지음

'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철학의 근본 문제다. 사르트르(1905~1980)는 자아가 행위의 배후에 있는 모종의 주체가 아니라 의식의 활동을 통일하는 초월적 대상이라고 봤다. 사르트르의 첫 번째 철학 저작으로 알려진 '자아의 초월성'이 현대 유럽사상연구회의 번역으로 출간됐다.

근대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도정에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토대를 사유 주체인 '나'에서 찾았다. '나는 생각한다'에서 출발한 데카르트 이래 철학의 화두였던 '나'는 세계 전체를 자기 자신으로 환원하고 타자를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라

할 위험을 늘 수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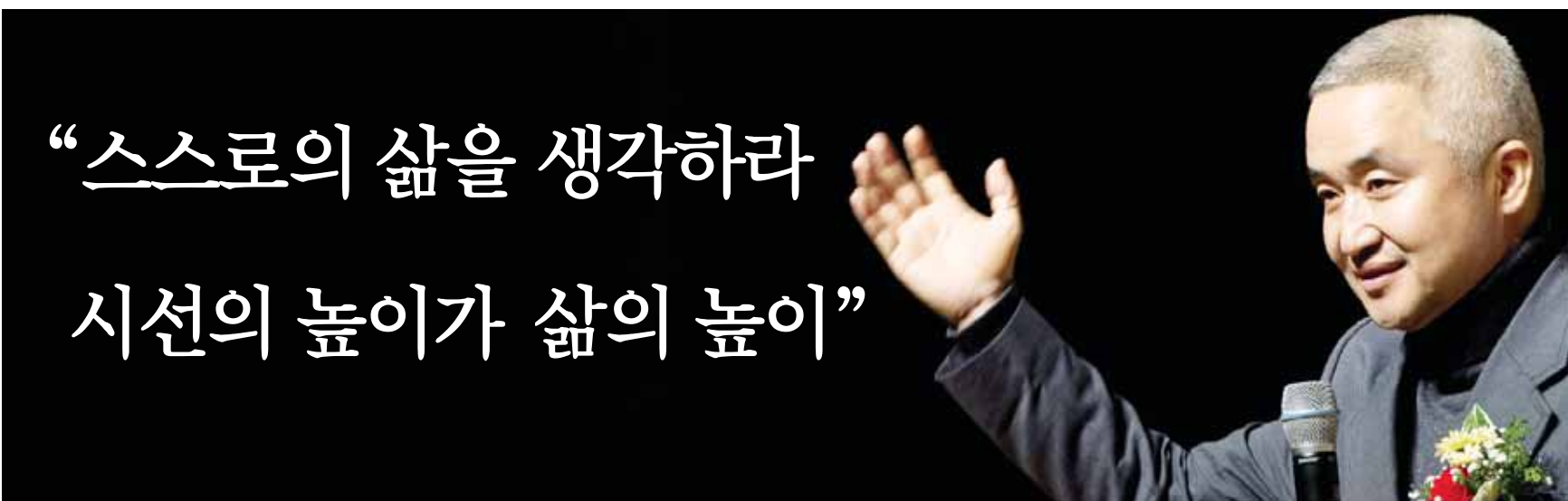
책에는 사르트르의 문학, 정치 실험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정교하고 투명한 언어로 압축돼 있다. 그에 따르면 자아는 의식 속에 사는 '거주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대상이다. 자아는 의식의 모든 활동을 통일하는 초월적 대상이다. 우리의 모든 상태, 행위의 배후에 존재하는 자아는 허구이며, 자아는 오로지 반성을 통해서만 출현한다는 것이다.

사르트르의 연인이었던 시몬 드 보부아르는 '자아의 초월성'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자아의 초월성’은 우리 모두를 심리적인 것, 자아, 유아론으로부터 탈출하게 한다.

유아론을 철폐함으로써 우리는 관념론의 뒷을 피했고, 사르트르는 자신의 주장이 가진 도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실천 역량을 여실히했다.”

〈민음사·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함평 출신 철학자 최진석은 생각의 높이, 시선의 높이가 바로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5년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 당시 모습. <광주일보DB>

탁월한 사유의 시선

최진석 지음



“아직은 오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려는 시도, 이것이 반역의 삶입니다. 모든 창조의 결과들은 다 반역의 결과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특히 훈고의 기풍으로만 채워진 상황에서 이는 더욱 절실한 삶의 태도이지요.”(본문 중에서)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이다.” 철학자 최진석은 그렇게 강조한다. 그는 물질과 부와 명예가 아닌 바라보는 높이, 생각의 높이가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얘기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전진과 후퇴의 경계에 서있다.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단체 신채호 선생이 한탄했던 비주체적이고 비독립적인 1925년 조선과 2017년 한국은 달라진 것이 없다. 선진화로의 상승은 고사하고 민주화 이전의 단계로 역행하는 형국이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기록한 것이 바로 철학이다. 시대를 읽는 시선을 통해 주체적이고 인격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철학은 누군가의 결과물을 배우는 것으로 인식된다. 뛰어난 학자들이 남긴 내용을 공부하거나 그것을 따라하는 차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한 철학은 이론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생각하는 힘이다.

광주일보에 '최진석의 老練의 생각'을 연재하는 인문학자 최진석은 생각의 노력에서 생각의 주인이 되는 법을 여실히 한다. 한마디로 지식을 버리고 철학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이번에 그가 펴낸 '탁

월한 사유의 시선'은 배우는 철학에서 생각하는 철학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다시 말해 철학은 자기 스스로의 삶의 격을 결정하는 탁월한 시선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책은 지난 2015년 건명원(健明苑)에서 진행한 다섯 차례의 강의를 토대로 묶었다. 현장 강의가 주를 이룬 만큼 술술 읽히고 어렵지 않다. 대신에 깊이와 사유가 녹아 있어 곱씹게 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저자는 진정한 의미의 철학은 '부정(不定)·선도(先導)·독립(獨立)·진인(眞人)'의 네 단계를 통해 현실 속에서 구체화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 여기에 기존의 것과 불화하는 용기를 통해 종속적인 나에서 독립해, 주체적인 나를 회복하는 단계(眞人)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과는 전혀 다르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그 시선이 인문적 시선이고 철학적 시선이고 문화적 시선이며 예술적 시선입니다. 이 차원의 시선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야만 '따라하기'가 선도하기

로 바뀌고, 훈고의 습관이 창의의 기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단계는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철학이 국가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되는 이유다. 일례로 중국은 동양을 앞서나간 서양의 힘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오랫동안 관찰하고 숙고했다. 국가를 지배하는 가장 높은 시선은 문화, 윤리, 사상, 철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적용했다. 우리도 지금의 상황을 분노를 넘어 전략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자는 논리다.

“우리는 해를 해로만 보거나 달을 달로만 보는 지(知)에 매몰되어 한편을 지키는 일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해와 달을 동시적 사건으로 파악하는 명(明)의 활동성을 동역으로 삼아 차라리 황무지로 달려나아가 합시다. 이미 있는 것에 편입되어 안정되기보다는, 아직은 이를 불지 않은 모호한 곳을 향해 씬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리는 불안을 자초해야 합니다. 훈고에 갇힌 조국에 창의의 기풍을 생산하려 담배야 합니다.”

〈21세기북스·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진실·특종 향한 사회부 기자들의 세계 그리



미드나잇 저널

훈조 마사토 지음

진실을 좇아 한밤중에도 취재에 나서는 기자들의 세계를 리얼하게 그린 소설이 출간됐다. 산케이신문사에서 20년간 특종을 쫓는 전문기자로서 활약한 바 있는 훈조 마사토가 펴낸 '미드나잇 저널'은 작가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설이다.

7년 전 아동 유괴 살인 사건 취재 중에 치명적인 오보를 내는 바람에 한직을 전전하게 된 기자 세키구치 고타로. 어느 날 그의 앞에 예전과 비슷한 수범의 사건이 발생한다. 기자로서의 사명감, 자신이 썼던 오보에 대한 책임감, 사회부 캡을 되찾고 싶은 자존심 등... 세키구치 고타로는 이번 사건이 7년 전 사건과 연관

이 있을을 직감하고 취재에 나선다. 그러나 그의 의욕과 달리 취재를 시작하지만 장벽에 부딪히고 만다. 경찰도, 목격자도, 심지어는 동료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둘러대기 일쑤다.

〈예문아카데미·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화 지식에 목마른 독자들 대화 리더 만들기



대화 리더가 되게 하는 지식 & 이슈 ...

이경윤 지음

“훌륭한 대화 리더는 세상을 아쉽게 한다. 아는 것 없이 마구 떠드는 수다쟁이가 아닌, 지식으로 무장한 대화 리더가 되어보라. 누구와 대화하든 상황을 리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친구나 직장 동료 모임, 연인과의 대화, 사업상 미팅 등 늘 타인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식의 질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 '대화 리더가 되게 하는 지식 & 이슈 상식 330'이 출간됐다.

대화 지식에 목마른 독자들을 대화 리더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저자 이경윤은 인터넷의 시사상식 조회수, '대기업 입사시험 시사용어', 고전 지식 등을 합해 3배수의 지식·이슈·상식을 뽑은 뒤 최근 뉴스 빈출도를 따져 압축 선정했다. 본문 속 서브 키워드까지 합하면 900제가 담겨 있다. 설명은 가급적 사실 에피소드를 곁들여 쉽게 외닿게 했다.

〈북네스트·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회원가입 절차

-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동호회 육성/골프꿈나무 지원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보성CC, 디오션, 함평엘리체, 제주, 고창

레저 이용혜택!!

엘도라도리조트, 무주투비스콘도, 서해안변산,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텔, 화순, 속초, 제주, 충무 금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완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관공제 옥상시공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겨울철 실내온도: 3~5℃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 후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장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 랜디니와의 콜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들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